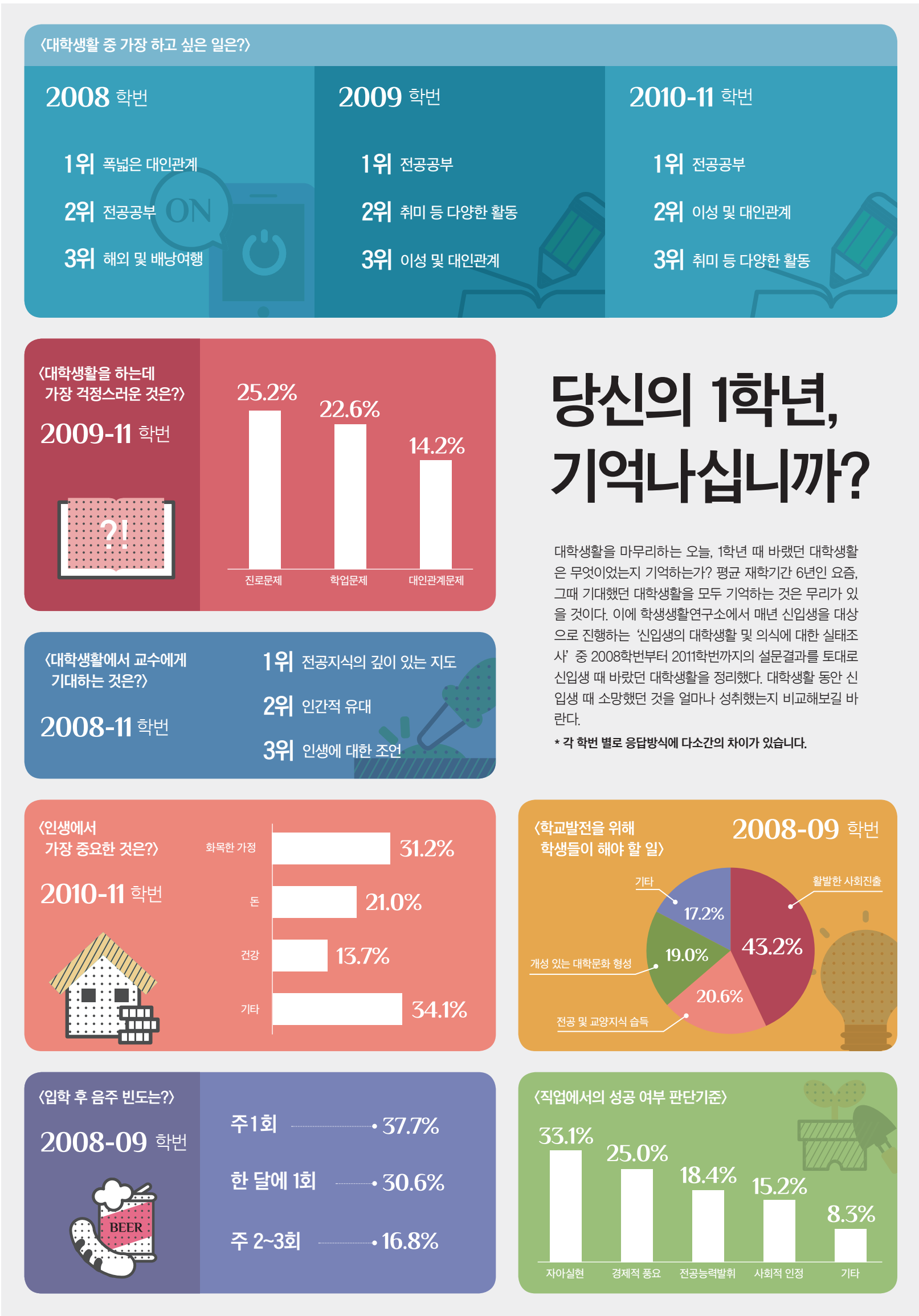


졸업특집



당신의 1학년, 기억나십니까?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오늘, 1학년 때 바랬던 대학생활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평균 재학기간 6년인 요즘, 그때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중 2008학년부터 2011학년까지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때 바랬던 대학생활을 정리했다. 대학생활 동안 신입생 때 소망했던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비교해보길 바란다.

* 각 학년 별로 응답방식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긴 밤의 시간을 매조지고, 빛나는 아침을 기원한다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졸업하는 신문의 세시봉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끝까지 일 시키는 기자들을 보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압박하던 스스로를 반추했다. (못된 면만 닮아서는...) 종종 듣는 핀잔처럼 대학을 다닌 것 인지, 대학주보를 다닌 것인지 헷갈린다. 졸업장 대신 임기만료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대학생활에서 대학주보를 떨어내면 남는 것이 없다.

#2. 처음 대학주보 편집실 문을 열던 날이 2009년 3월이었다. 2년 5개월 후에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2011년 8월은 또 다른 시작이었을 뿐이다. 입대일이 2012년 5월 1일이던 와중에 2012년 4월 30일까지 기사를 썼고, 2014년 1월 31일에 전역을 하자마자 이틀 후인 2월 2일부터 다시 기사를 썼으니가 정말이지 에누리 없는 곳이다. 그리고 지난해 2학기부터는 심지어 두 번째 편집장직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아득한 시간들이 남긴 것은 공식집계 517개의 기사(비공식은 더 많겠지만)와 이런저런 사진들, 그리고 많은 디자인자료 등이다.

#3. 그러니까 늘 아침에 문을 열고 편집실에 들어가던 일은 익숙하다 못해 당연한 일이었다. 반대로 당연하게도 끝은 다가왔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할지는 별 고민이 없었다. 중언부언 써내려가고 있는 이글처럼 어떻게 매듭지어야할지 결론내리지 못한 채 졸업식이 닥쳐온 셈이다. 좌우를 돌아보면 다들 무언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홀로 우두커니 서서 지나간 것들만 보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하기도 하다.

#4. 이 와중에 ‘끝내다’라는 말이 영 맘에 들지 않아 사전을 살피던 차, ‘매조지다’라는 말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하여 마무리하다’라는 뜻의 매조지다라는 표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끝내다’는 아쉽고, ‘마무리’는 작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였다.(언제든가 ‘매조지다’의 ‘매’를 빠뜨리고 기사를 마감해서 정말 조저졌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홀로 우두커니 서있는 기분을 느끼는 또 다른 이가 있다면, 지금 매조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바쁘게 떠나기 전에, 20대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한 이 캠퍼스의 건물들과 곳곳을 둘러보면 좋겠다. 그 장소마다 얹혀있는 실연의 아픔부터 작은 성공까지 함께 울고 웃어줬던 선배, 동기, 후배들과의 추억도 곱씹어 음미하길 바란다. 교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힌 것(예를 들어 ‘양과감질은 반절로 자른 뒤에 까면 벗기기 쉽다’라든지)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길 권한다. 그렇게 매조진 뒤에 걸음을 옮겨도 늦지 않는다고 믿는다.

#5. 지난해 읽은 여러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긴 밤의 시간을 지나 여기에 와 있다’였다. 드라마 <미생>에서 김동식 대리로 분했던 배우 김대명의 인터뷰 기사 마지막 문장이었다. 고생 끝에 <미생>으로 주목받은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 문장을 빌려와 말하고 싶다. 오늘 졸업하는 이들 모두 긴 밤의 시간을 매조지고, 빛나는 아침이 밝길 기원한다. 졸업을 축하한다.(셀프로도!)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 27만 경희인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누리자, 동문혜택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대외협력처가 올해부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은 새롭게 경희가족으로 참여할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서비스다.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생은 졸업식장에 설치된 가입 부스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페이지(future.khu.ac.kr)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매월 기부금액수를 기재하면 된다.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동문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이용, 의료서비스 혜택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조사 소식에 대한 이메일 알람서비스,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쌀

화환 서비스, ▲출산시 축하 기념품 제공, ▲부모님 상·근조기 서비스, ▲학교 행사 초대(매그놀리아 송년음악회 및 각종 평화의 전당 행사), ▲빅토리눅스 주머니칼 및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서비스 외에도 졸업 후 경희인 간의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은 새내기 경희 동문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선배 동문 간의 활발한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박상우 팀장은 “사회에 나서는 졸업생에게 27만 경희동문의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동문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문들이 내는 소중한 기부금은 전액 경희발전기금으로 적립 및 운용될 예정이다.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세액공제용 법정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다.

기존 동문 혜택	도서관 이용(1인당 3권 14일간 대출가능)
	의료서비스 (경희의료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뉴스레터 이용해 학교행사 확인가능
경희 라이언 1만인 클럽 가입시 추가혜택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쌀 화환 서비스
	출산시 축하 기념품 제공
	부모님 상·근조기 서비스
	학교 행사 초대 (매그놀리아 송년음악회 및 각종 평화의 전당 행사)
	빅토리눅스 주머니칼 및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 제공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